

## 고대 무기의 재료

이영범 | 106호 백제실 | 18:00~18:30

무기武器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살상력殺傷力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발전하면서 고대 무기의 재료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의 등장과 과급으로 인하여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농구와 공구,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향상된 생산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대 국가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대국가 형성기인 삼한 ~ 삼국시대에는 철기의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제 무기의 생산력과 관계됩니다.

철기 제작방법에는 주조와 단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무기를 살펴보면 도刀, 검劍, 창, 화살촉, 도끼, 낫 등 다양합니다. 이 중 도나 검은 주로 단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 후 전쟁의 재료로 화약을 기반으로 하는 총·화포, 미사일, 핵폭탄 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림1. 완주 상운리 출토 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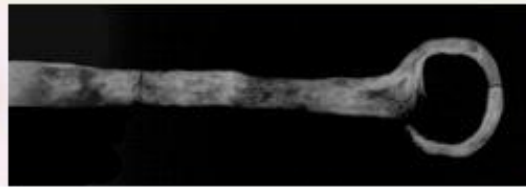
그림2. 대장간(김홍도 작품)

<고대 무기 중 환두도의 발전 과정>

### 1) 1단계 (일체형) 제작과정



천안 청당동 출토



X-선 촬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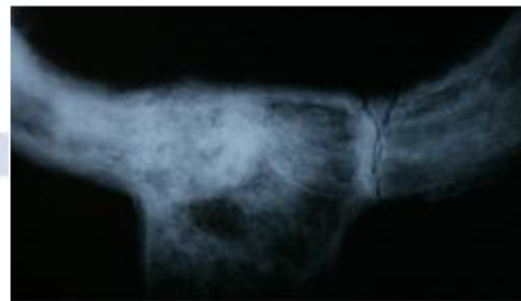
### 2) 2단계 (환두단접형) 제작과정



고창 남산리 출토



X-선 촬영 사진



고리단접 X-선 촬영 세부



고리와 손잡이 단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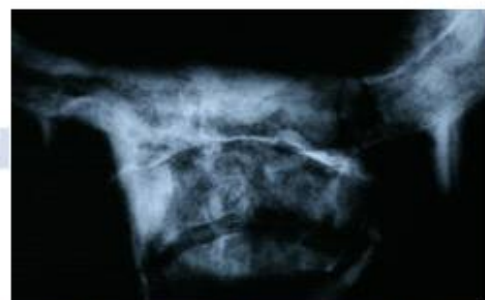
### 3) 3단계 (이체형)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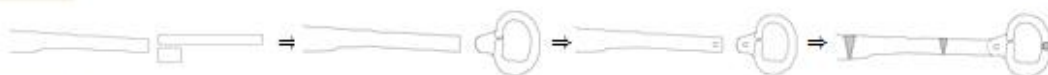
안성 도기성 출토



X-선 촬영 사진



고리단접 및 못접 X-선 촬영 세부



고리와 손잡이 단접

한 개의 못 구멍 뚫기

한 개의 못으로 고정(리벳팅)

## 복식으로 살펴본 창령사 터 오백나한

강삼혜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수행자인 승려 복식을 입고 있습니다. 가사袈裟로 대표되는 수행자 복식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왕궁을 떠나 사냥꾼의 거칠고 헤진 옷을 바꿔 입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는 승가의 의복으로 누더기 천인 일명 분소의糞掃衣를 선택함으로써 수행자로서 모든 욕심을 버리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가지런한 밧고랑 형상을 한 전상의田相衣로 변화하여 수행자의 몸가짐이 반듯하게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인도와 다른 기후적인 요인으로 장삼長衫 위에 가사를 착용하면서 장삼과 가사는 불교 복식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관음의 화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도의 고승인 승가대사 僧伽大師(629~710) 신앙이 유행하면서 머리에 두건을 쓴 이국적인 승려 이미지가 널리 유행하게 되면서 머리에 두건을 쓴 나한상이 유난히 많이 제작됩니다.

□ 편단우견형偏袒右肩形 가사 :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왼쪽 어깨만 덮는 형태를 말하며, 상대방에 경의를 표하는 예법입니다. 가사는 가로로 짧게 이어붙이는 제堤와 세로로 길게 이어 붙이는 조條로 구성된 네모난 천 모양으로 인도 복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창령사 나한상에서 가사 자락은 왼쪽 팔위에서부터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이 부분을 오른쪽 무릎보다 두툼하게 표현하여 가사의 주름을 나타냈습니다.(그림1)

□ 통견형通肩形 가사 : 양어깨를 덮는 가사 착용법으로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에 “국왕의 청함을 받았을 때나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할 때, 좌선을 하거나 경을 읽을 때, 각처를 돌아다니거나 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 통견을 한다.” 고 하여 위엄을 갖추어야 할 때 입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령사 나한 중에는 가사를 여미지 않아, 가사 안에 입은 장삼의 모습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그림2)

□ 가사를 덮어쓴 복두의覆頭衣 가사 : 머리 위까지 가사를 뒤집어쓰고 선정禪定에 든 나한을 복두의 나한이라고 한. 북위시대(386~534)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달마達磨의 모습에서 많이 보았던 옷차림입니다. 달마는 북위시대(386~534) 송산소림사에서 9년간의 면벽面壁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인물입니다.

고요히 선정禪定에 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가사를 뒤집어쓴 창령사 나한상 모습은 47점에 이를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었던 옛 선승들의 표식인 가사를 뒤집어쓴 나한상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나한상 조성 당시 창령사에 참선하는 승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그림3)

□ 장삼長衫을 입은 나한상 : 장삼은 중국에서 불교 복식의 범복으로 정해졌으며 현재까지도 깃이 곧고 오른쪽으로 여며 입는, 소매가 넓은 포袍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삼은 저고리인 편삼褊衫과 하의인 치마가 허리에서 위아래로 합쳐 연결된 형태에서 시작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승려의 장삼이 도포와 두루마기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사를 입지 않고 장삼만 착용한 장삼형 나한 복식의 큰 특징은 없으나, 가사와 함께 착용한 형태의 장삼보다는 소매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두건頭巾을 쓴 나한상 : 두건은 말 그대로 머리에 쓰는 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쓴 쓰개도 두건이라고 부릅니다. 제천 사자빈신사 터 석탑(1022년) 내 나한상이나 서울 승가사 승가대사상(1024년)도 이러한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가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경우는 지장보살과 나한이며, 조사祖師와 유마거사처럼 나한의 경지에 이른 경우도 두건을 표현하였습니다.(그림4)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심의深衣를 입고 머리에 쓰던 복건도 두건과 비슷합니다. 복건은 온폭 천으로 만들므로 폭건幅巾이라 하는데, ‘幅’자는 너비·단위·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림1. 편단우건형 가사를 걸친 나한



그림2. 통건형 가사를 덮어쓴 나한



그림3. 가사를 덮어쓴 나한



그림4. 두건을 쓴 나한

##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의 대응과 변화

이수경 | 119호 조선3실 | 19:00~19:3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기존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고 국가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국가와 지배층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교 윤리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학禮學이 더욱 중시되었고, 김장생金長生(1548~1631)은 『가례집람家禮輯覽』을 비롯한 각종 의례서를 지어 예학을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학이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도 이어졌는데, 국왕의 상례喪禮에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해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이끄는 서인西人 세력과 허목許穆(1595~1682)의 남인南人 간에 분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국초부터 실행을 위해 노력한 『주자가례』의 장자 상속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가문을 잇기 위해 부계 친족 간에 입양이 빈번히 일어났고, 점차 족보族譜에 서자庶子와 외손을 기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남이나 장손이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되었고 제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배층은 장자상속, 제사, 족보를 중시하는 성리학적 종법 질서를 생활화하여 사회를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교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학禮學을 중시하고 북벌론北伐論과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제기, 18세기

## 거장과 신예

권혜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서화미술회와 서화협회를 이끌었던 안중식은 화단의 중심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화풍은 이한복, 오일영, 최우석, 김은호,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이용우 등 당시 서화미술회에서 공부했던 신예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궁중화가의 면모와 중국 상해 직업화가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청록산수화, 정밀하고 섬세한 색채로 명암과 형태를 살려 근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기명절지도는 새로운 전통이 되어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거장과 신예의 만남은 한국 근대 서화의 아카데미즘이자 20세기 전환기 미술사에서 가장 정점의 순간입니다.

전남 영광의 풍경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한 <영광풍경> 작품의 상단에 적힌 “산천이 구불구불 휘감아 돌고, 여염집이 즐비하며, 나무들이 무성하여 그늘이 있는 것, 올망졸망한 누각, 너른 정원과 비옥한 땅이 물길을 이어가며 펼쳐진 것,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것, 온갖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침저녁 풍경,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로 문자로 묘사할 수 없구나”라는 안중식의 제발題跋은, 우리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세심한 관찰력과 일상의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드러납니다. 향토에 대한 근대적 시각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작품은 안중식의 사후 신진 세대들이 시도했던 혁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중식, <영광풍경>, 1915년, 비단에 엮은 색, 삼성미술관 리움